

지방공항에서 마닐라,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된다

- 한-필리핀 항공회담(7.3~7.4)… 한국 지방공항↔마닐라 노선 직항 자유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3일부터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-필리핀 간 항공회담*에서 한국지방-마닐라 구간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다.

* <수석대표> 한국심지영 국제항공과장, 필리핀 ENRIQUE ANTONIO ESQUIVEL III 교통부 항공차관보

- 그간 한국-마닐라 노선은 주 2만석으로 제한되고 있었으나, 이번 항공 회담을 통해 한국 지방↔마닐라 노선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.

- 그 결과, 우리나라 지방↔마닐라 노선은 운항횟수 제한없이 취항이 가능해짐에 따라, 언제라도 국적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이 가능해졌다.
- 또한, 現 한국↔마닐라 주 2만석 운수권을 주 3만석으로 증대하고,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↔마닐라 노선에만 적용하기로 함으로써, 양국은 수도공항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직항이 자유화 되었다.

<한-필리핀 항공회담 결과>

기존(~'24.7.3)	변경('24.7.4~)
○ 한↔필리핀 직항 자유화(단, 한국↔마닐라 제외) ○ 한국 내 모든 공항↔마닐라 간 주2만석	○ 한↔필리핀 직항 자유화(단, 인천↔마닐라 제외) ○ 인천↔마닐라 주3만석(지방공항↔마닐라 자유화)

-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그간 한국 지방-마닐라 노선은 제한된 운수권으로 인해 국적항공사의 추가 취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”면서,
- “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, 마닐라 노선은 상용수요가 꾸준한 만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필리핀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. 계속해서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심지영	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희	(044-201-4208)
		담당자	주무관	김대영	(044-201-421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